

〈서 평〉

Quee-Young Kim, *The Fall of Syngman Rhee*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83). 249 pp+xvi.

金 學 俊
(서울대 사회대 교수)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가 간행하는 한국연구 모노그래프(Korea Research Monograph) 제 7권인 이 책은 간단히 말해 1960년의 4·19의 거 또는 혁명에 관한 연구이다. 이 글을 통해 필자는 ①이 책의 구성; ②이 책의 내용; ③이 책의 자료; ④이 책의 공헌; ⑤이 책의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I.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李承晚대통령의 하야와 그에 따른 自由黨政權의 붕괴를 가져온 1960년 초 남한에 있어서의 대중봉기에 관한 연구이다. 이 책을 통해 저자 金貴泳교수(미국 와이오밍대학교 사회학과)는 그 대중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발전해 나갔으며 그에 따라 어떻게 李政權이 붕괴해 나갔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보아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부분은 제 1장(「사회구조와 혁명운동」)과 제 2장(「권력구조와 정치적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저자는 李政權 아래서의 남한의 사회구조와 李政權의 권력구조를 분석한다. 1945년의 해방으로부터 1960년 초까지의 남한 政治史도 논의되고 있다.

두번째 부분은 제3장으로부터 제5장까지이다. 여기서 저자는 1960년 2월 28일의 慶北高等學校 학생시위로부터 4월 26일의 李대통령 하야까지의 시기에 발생한 대중운동과 정치적 사건을 일별로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이 시기를 세 단계로 나눴다. 첫 단계가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로, 저자는 이 시기를 「문턱(threshold)」의 시기라고 보았다. 정치적 대격변의 물결이 문턱에까지 파도쳐 온 시기로 파악한 것이다. 둘째 단계가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로, 저자는 이 시기를 「主力形成(thrust)」의 시기라고 보았다. 정치적 대격변을 향한 물결이 하나의主流로서 형성된 시기로 파악한 것이다. 세째 단계가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로, 저자는 이 시기를 「돌파(breakthrough)」의 시기라고 보았다. 정치적 대격변을 향한 커다란主流가 마침내 自由黨政權이라는 장벽을 뚫어버린 시기로 파악한 것이다.

세번째 부분은 제6장으로 이 책의 결론이다. 이 부분은 自由黨政權의 붕괴로 정점에 도달한 1960년 초 남한에서의 대규모 정치적 항의운동에 대한 이론적·정치학적·사회학적 논의이다.

이 책은 끝 부분에 관련문헌목록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김교수는 4·19를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들로 다음을 지적하고 있다: ① C.I. Eugene Kim and Ke-soo Kim, "The April 1960 Korean Student Movement," *Western Political Quarterly*, 17 (March 1964); ② Ke-soo Kim, "The April Revolution, 1960: A Survey Analysis," *The Journal of Social Research*, 1:1 (April 1965); ③ Hwa-soo Lee, "An Analysis of the April Revolution in Korea," *Koreana Quarterly*, 8 (Summer 1966); ④ Byung-hun Oh, "University Students and Politics in Korea," *Koreana Quarterly*, 9 (Winter 1967); ⑤ William A. Douglas, "Korean Students and Politics," *Asian Survey*, 3 (December 1963); ⑥ Ick-hwan Lee, "Motivations of the Student Movement in Korea," *East-West Center Review*, 2:3 (February 1966); ⑦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학생문제연구』(서울: 1970).

II. 이 책의 내용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정확히 전달하려면 상당한 양의 지면이 요구된다.

그리므로 여기서는 필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새로운 정보 또는 논의로 느껴지는 부분만을 옮기기로 한다.

① 金교수는 4·19를 혁명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반란(revolt)은 혁명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력한 지도력을 결여했을 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조직이나 이데올로기를 결여했기 때문이다. 권력에의 의지, 그리고 지배권력구조를 파괴하려는 결심이 결여되어 있었다. 반란은, 그것이 비록 농촌 사람들로부터 압도적인 事後的 지지를 받기는 하였지만, 무엇보다 도시적 사건이었으며, 그것이 불러일으킨 동요는 사회구조라는 관점에서 볼 때 광범하지도 않았고 근본적이지도 않았다. 모든 주요한 구조적 관계들, 제도들, 그리고 일이 되어 가는 지배적 양식들은 지속되었다. 사실 국민 각 다수는 한 차례 큰 바람이 지나가고 나자 자신들의 하는 일의 기본방식에 있어서 거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것은 체제 내부의 변화이었지 체제의 변화는 아니었다.”(pp. 8 : 강조점은 저자의 것).

② 李대통령은 張勉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 남한에 대한 美國의 영향력은 대단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張勉이 駐美大使로 재직할 때 본국정부의 훈령보다 美國務省의 의견에 더 충실하게 따랐다고 생각하는 李대통령은 張勉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 張勉은 한반도 통일의 꿈을 버릴 것이라고까지 생각했다. (이 점은 Robert Oliver 가 1977년 6월 19일 金교수와의 면담에서 밝혔다.)

③ 2·28 慶北高校·大邱高校生 시위는 李政權의 「종말의 시작」이었다.

④ 3월 3일 『동아일보』가 崔仁圭내무장관이 전국경찰에 시달한 부정선거방안(3인조 및 5인조, 사전투표 등등)을 특종보도하자 각료들과 自由黨 간부들 및 景務臺의 朴贊一 수석비서관 등등은 모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들은 崔仁圭에게 기사의 사실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崔는 그 기사를 완전한 허위보도라고 단언했다. 朴贊一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李대통령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崔仁圭를 불렀다. 두 사람만이 따로 만난 뒤 李대통령은 朴贊一에게 崔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부인했다고 강조할 뿐 어떤 조처를 취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朴贊一은 1973년 金교수에게 말했다.

⑤ 4월 21일 金朱烈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제 2차 馬山시위가 舉市的으로 벌어졌다. 경찰의 수습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자 洪璕基내무장관은 이날 밤 金貞烈국방장관에게 군대의 개입을 요청했다. 金국방은 軍이 民事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洪내무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Carter B. Magruder 주한유엔사령관에게 馬山부근의 한국군 35 사단 소속 병력을 투입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Magruder 사령관과 金국방은 軍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洪내무의 지속적인 요청에 정부에 대한 지지의 표시로 35명의 헌병을 교외지대의 발전소에 배치했다. (1973년 4월 20일자 金교수의 金국방 면담)

⑥ 金朱烈의 시체사진이 신문에 보도되자 朴贊一은 李대통령에게 신문을 보여 주면서 사태의 진상과 심각성에 대해 대통령이 주의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했다. 李대통령의 반응은 대단히 미온적이었다.

⑦ 4월 19일 낮 1시 25분 景務臺 부근에서 경찰에 의한 최초의 발포가 있었으며 사상자가 발생했다. 朴贊一是 뒷날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경찰이 발포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들은(=경찰은) 무력해졌다. 그것은 전체 사태의 전환점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운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때 洪내무와 金국방은 景務臺에 있었다. 洪내무는 겁을 내고 있었으며 金국방에게 軍의 개입을 요청했다. 金국방은 軍의 개입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金국방은 北韓으로부터의 공격 또는 국도의 국가적 위급상황의 경우에만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洪내무는 계엄령의 선포로써만 사태가 가라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金국방은 宋堯讚 육군참모총장에게 전화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계엄령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말한 다음 그것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宋총장은 그것은 전적으로 金국방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金국방은 宋총장에게 주한 美 8 군과 한국군 병력의 사용문제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宋총장으로부터의 대답이 늦어지고 洪내무의 요청이 거듭됨에 따라, 金국방은 평소에 친분이 두텁던 주한유엔군부사령관 Emerson Cummings 중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Cummings 중장은 어느 병력을 사용할 것이냐고 물었다. 金국방은 水色에 있는 15 사단 병력을 사용하겠다고 답변했다. Cummings 중장은 동의했

다. 이 무렵 宋충장의 전화가 왔다. 金국방은 즉각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때 金국방이 염두에 둔 것은 경비계엄이었다. 그것은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동의를 요구했다. 곧 열린 국무회의는 동의를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洪내무와 金국방은 李대통령에게로 갔다. 洪내무의 요청에 대해 李대통령은 달가와하지 않았다. 金국방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不可避性을 강조했다. 그래도 李대통령은 쉽게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李대통령은 洪·金 두 장관을 충분히 신임하고 있었기에 마침내 동의하고 계엄령 발효시간을 2 시 30분으로 정했으며 2 시 45분에 전국으로 방송했다. 이때 趙寅九·チ・アン국장은 洪내무에게 계엄령 발효시간을 최초의 발표 이전인 낮 1시로 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洪내무는 이를 받아들여 金국방에게 요청했다. 金국방은 주저했으나 洪내무의 強請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을 전해 들은 宋충장은 발표의 책임을 경찰이 군대에 넘기려는 음모로 풀이했다. 육군법무감 김완용장군은 宋충장에게 부과된 임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려면 비상계엄의 선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宋충장과 金국방이 받아들임에 따라 李대통령도 마지못해 재가했다.

⑧ 당시로서는 李대통령에 대한 宋충장 또는 계엄사령부의 충성심에 대한 의문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宋충장 또는 계엄사령부는 李대통령에 대해 충성을 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충성의 「轉移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 흔히 美 CIA가 그렇게 하도록 공작했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충성의 轉移」는 한국군이 창설된 이후의 역사에 의해, 그리고 급변하는 상황에 직면해 宋충장과 그의 참모진이 대개 즉흥적으로 내린 매일 매일의 결정이 낳은 누적적 효과에 의해 조건지워진 것이었다.

당시 군부 내부에는 3·15 부정선거에 따르기는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불만이 성장해 있었으며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학생이나 시민에게 違害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 깔려 있었다. 宋충장의 경우, 군부의 부정을 과감히 체거한 참모총장으로서의 평판이 3·15 부정선거에 대한 협력으로 손상됐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번에는 정의의 길을 수호함으로써 자신의 평판을 다시 세워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李대통령의 하야에 이르는 과정에 美 CIA

가 개입한 증거가 없다. 1977년 8월 21일자 면담에서, 당시 美國務省의 韓國擔當官 Ronald Rainard는 4·19 사태에 美 CIA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부인했다.

⑨ 4월 21일부터 국회의장이며 부통령 당선자인 李起鵬을 정계에서 은퇴시키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위기를 수습하려는 노력이 朴비서관과 金國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여기서 「거국내각」이라고 하여 야당 정치인의 입각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卞榮泰·許政·李範奭·俞鎮午 등등이 고려되었다. 4월 22일 洪內무와 金國방이 李起鵬을 방문하여 사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李는 李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은 처음에는 반대했다. 金國방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李대통령은 李의 사퇴를 수락했고, 李도 사퇴서 발표의 준비에 착수했다. 이어 卞·許 두 사람의 李대통령 방문이 있었다. 두 사람은 李의 사퇴와 李대통령의 自由黨 탈당을 비롯한 몇 가지 수습안을 제시했고, 李대통령이 자신들의 進言을 수락했다는 인상을 받고 景務臺를 나왔다. 그러나 朴비서관의 회고에 따르면, 그 다음 날 李대통령은 두 사람이 찾아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할 뿐 對話의 핵심적 부분을 잊고 있었다. 4월 23일 李起鵬의 「부통령 사퇴고려」의 성명이 나왔다. 李의 비서실장 韓甲洙의 案은 국민에 대한 사과와 조건없는 사퇴였으나, 洪內무와 自由黨 중앙위원회의장 韓熙錫의 주장으로 사과 부분이 빠지고 사퇴 「고려」라는 표현이 들어 갔다. 이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⑩ 4월 24일 李대통령은 自由黨과의 절연을 선언했고 許政을 수반으로 하는 새 内閣 구성안을 발표했다. 이 시점에서 McConaugh 주한미국 대사는 宋총장을 수반으로 하는 軍政案의 수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Magnuder 중장, 그리고 주한 美 CIA 책임자 James Houseman 대령 역시 宋총장에게 쿠데타를 통해 집권할 것을 권고했다. Magruder 장군은 남한의 상황이 부르조아혁명으로 시작해 프롤레타리아혁명으로 끝난 러시아혁명을 반복할 가능성에 있음을 지적했다. 宋총장은 잠시 쿠데타案을 검토했다. 그러나 참모들의 반대와 陸士生들의 반대 등등에 직면하여 그 案을 포기했다. 당시 육군의 지배적 분위기는 한국에 민주주의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군의 정치개입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⑪ 4월 25일 대학교수단의 시위가 있었으며 이것이 돌파의 계기가 되었

다. 시위는 대규모의 수준으로 다시 격화되었다. 4월 26일에는 50만 명 수준의 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보고가 계엄사에 들어 오기도 하였다. 4월 26일 아침 McConaughy 대사로부터 金國방에게 전화가 걸려 왔다. 대사는 李대통령과 자신의 면담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金國방은 궁정적으로 답변했다.

景務臺에서 金國방에게 李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질문하고 자신이 사임하면 수습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金國방은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답변했다. 李대통령은 朴비서관을 불러 같은 질문을 했다. 朴비서관의 답변도 마찬가지였다. 李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자신의 사임서를 기초하라고 지시했으며, 그에 따라 두 사람은 사임서를 기초했다. 이 무렵 宋총장이 들어 왔다. 李대통령은 그에게 다시 자신의 사임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宋총장도 그것이 유일한 해결안이라고 대답했다. 李대통령은 뽑시화를 냈다. 마침내 李대통령의 사임선언문이 작성됐고 약간의 우여곡절 끝에 발표됐다. 이 발표가 있은 직후 金國방은 McConaughy 대사에게 전화하여 이제 李대통령을 예방해도 좋다고 말했다. 곧 McConaughy 대사가 Magruder 중장과 함께 景務臺로 들어 왔다. 金國방이 李대통령의 결심을 전해주고 사임선언문의 영어본을 건네 주었다. 이것을 읽고 나서 대사는 李대통령이 美國의 George Washington으로서 한국인의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⑫ 4월 27일 李대통령은 대통령직 사임을 기부하는 태도를 취했다. 李대통령이 사임서에 서명을 하면, 이 문서를 국회에 보내 국회의 정식동의를 얻음으로써 李대통령의 사임은 법적으로 완료된다. 그런데 막상 비서진이 사임서를 작성하여 李대통령에 올렸으나 자신이 사임하면 전국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난다는 이유를 들어 서명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외무장관으로 임직한 許政이 권고해도 응하지 않았다. 金國방이 강경히 권고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서명했다.

李대통령이 서명을 끝내고 비서진이 그것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보고—— 국회는 그날로 李대통령의 사임을 수락했다——金國방은 계엄사령부로 宋사령관을 방문하여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이 때 宋사령관에게 주한미군사고문단 단장 Hauser 장군으로부터의 메시지가 인편을 통해 전달됐다. 그 메

시지의 첫 줄은 “美國 정부는 곧 수립될 韓國에 있어서의 군사정부의 수반으로서 귀하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귀하에게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되어 있었다. 둘째 줄은 주한미군사고문단이 데모진압을 위한 한국군 2개 사단을 훈련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놀란 金國방은 宋사령관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宋사령관은 자신이 쿠데타를 수행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金국방은 Magruder 사령관에게 통화하여 진상을 물으면서 한국이 이제 許政을 수반으로 하는 민간 정부를 갖게 된 시점에서 왜 군사정부를 계획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Magruder는 그 안이 McConaughy 대사로부터 나왔으며 국무성의 최종제가를 받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金국방은 즉각 MaConaughy 대사와 통화했다. McConaughy 대사는 美國이 許政을 비롯한 새 각료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안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金국방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美國이 어째서 韓國에 대해서는 군정을 수립하려 하느냐고 항의하고 大使와 許政과의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McConaughy는 美國이 韓國軍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조건아래 군정안을 일단 포기한다고 약속하고 許政과의 면담에 동의했다. McConaughy 와 許政은 곧 주한미대사관 문정관인 Gregory Henderson 집에서 만났다. 대사는 새 정부의 외교·군사정책의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했으며 국방장관과 육군참모총장 人選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許政은 원칙론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거의 아무런 언질을 주지 않았다. 이 정도에서 양자의 면담은 끝났다.

4월 28일 새벽 5시 李起鵬 일가가 집단자살했다. 세간에는 이들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살해된 것이라는 풍설도 있으나 朴贊一은 1973년 5월 16일자 면담에서 그들이 집단자살한 것은 명백하다고 증언했다. 불과 몇 시간 뒤 金국방은 McConaughy 대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McConaughy 대사는 국무성이 한국군정안을 완전 포기했다는 점과 李起鵬 일가의 해외망명을 요청한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CPA 기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려 왔다.

III. 이 책의 자료

이 책의 자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사월혁명연구반이 작성한 『사월혁명자료』이다. 사월혁명연구반은 1960년 연세대 정외과 4년생이었던 金

達中·安秉俊 두 사람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조직으로, 대구학생궐기로부터 마산의거를 거쳐 4·26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적 변동에 직접·간접으로 개입된 약 2백명을 그 해 여름 면담하여 그 기록을 모아서 연세대 도서관에 비치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는 한국혁명재판사 편찬위원회가 간행한 다섯 권의 『한국혁명재판사』(동아사, 1962)이다. Stephen Bradner가 1963년 하버드 대학교에 제출한 석사학위논문 "The Student Movement in the Korean Election Crisis of 1960"도 자주 인용되고 있다.

저자는 또한 자신의 광범위한 면담기록에도 의존하고 있다. 金貞烈국방장관 및 朴贊一비서관으로부터의 회고와 증언은 우리에게 소중한 세 정보를 제공한다.

IV. 이 책의 공헌

이 책의 공헌은 크게 보아 두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다. 정보의 측면과 이론의 측면이 그것이다.

첫째, 정보의 측면에서 보면, 이 책은 李政權의 봉괴에 관해 새로운 결정적인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또 그러한 새 정보를 통해 지난 날에는 뚜렷한 근거없이 통용되던 여러 가지 說들을 부인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李政權 봉괴의 진상에 대해 보다 더 정확한 理解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 이 책이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정보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이미 앞 부분에서 상세히 대답했으므로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大韓民國 제 1 공화정의 수립 이후의 南韓政治史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정보에 국한시켜 논의하기로 한다.

그것은, 결론부터 말해, 李政權의 봉괴를 가져 옴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美國이 아니라 韓國軍部였다는 사실이다. 앞 부분에서 이미 상세히 설명되었듯이, 通說과는 달리, 주한미국대사 McConaughy는 李대통령의 하야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야 겨우 李대통령을 만났을 뿐이다. 美國이 宋堯讚계엄사령관에게 쿠데타를 수행하여 軍政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으나 宋사령관과 그의 계엄군은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美國이 李政權의 봉괴 직전과 직후 모두에 韓國의 정치적 운명에 대해 결정적이며

일차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어느 세력이 직접적이며 일차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가? 金교수의 연구가 보여 준 바로는, 그 세력은 韓國의 軍部였다. 韓國의 軍部가 李大統領에게 충성을 하지 않음으로써 李政權의 봉과는 이루어졌고 韓國의 軍部가 許政 과도정부의 수립을 지지함으로써 許政 과도정부의 수립은 가능했다.

金교수의 이러한 결론——金교수는 이 결론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는 않다——은 Alan Stone 교수가 자신의 논문 “The Korean Student Revolution: A Political Analysis”——이 논문은 James B. Palais 교수가 편집하고 The Joint Committee on Korean Studies of the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and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이 1974년 3월에 간행한 *Occasional Papers on Korea*, No. 2에 실려 있다——에서 제시한 결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논문에서 Stone 교수는 “학생들이 아니라 南韓의 軍이 李承晚을 권력으로부터 물러나게 했다”고 주장하고, “美國人들은 韓國軍이 南韓에서의 결정적인 정치세력으로서 美國을 대치했다는 논리적인 결론을 추출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따라서 李政權의 봉과는 韓國軍의 「간접 쿠데타」의 결과였다고 보고,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韓國軍의 직접적 쿠데타였던 5·16과 4·19가 反命題의인 것이 아니라 고 주장한다.

둘째, 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이 책은 4·19 또는 李政權의 봉과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정치사회적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에서 그 중요한 부분을 읊기면 다음과 같다.

① 도덕적 기준과 권력당국자의 관행 사이의 불일치가 4·19라는 정치적 봉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명이면서 원천이다. 가장 중요한 사회적 모순은 교육의 내용과 正當性의 범주 사이의 불일치이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교육제도를 통해 배양된 학생들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현실세계의 비민주주의적 관행 사이의 불일치가 학생봉기의 주요 원인이었다.

都市化의 비율과 경제발전의 비율 사이의 간격이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 속에 政權의 정당성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를 낳게 했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도시의 주민층으로부터 야당은 지지를 얻은 반면에 여당은 지지를 잃었다.

한편 제1공화정의 출발과 더불어 시작된 李대통령과 그의 반대세력 사이의 권력투쟁은 반대세력의 힘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 직면해 꽤 다른 수준에서 노골적인 대결로 발전했다. 학생들과 여론지도자들은 李政權이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을 유린한 때 맞았으며, 학생과 정부 사이에 폭력적 갈등이 폭발했을 때 美國 정부는 李承晩으로부터 돌아 섰고 韓國의 계엄사령부도 역시 그러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겹쳐져서 결국 李政權의 붕괴가 이루어졌다.

② 그러면 4·19의 정치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 중대한 물음에 대해 金교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4·19는 그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혁명적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4·19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여명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밑바탕에는 4·19에 대한 노스탈지아가 깔려 있다. 즉 우리에게도 성공한 결음 직전까지 갔던 진정한 혁명적 민주주의운동이 있었다는 것, 4·19가 만일 「반동적」 정권에 의해 탄압되지 않았더라면, 韓國의 현대사는 英國과 프랑스 또는 美國의 현대사와 같았을 것이라는 것, 1960년은 韓國의 1776년 또는 1789년일 수 있었다는 것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金교수는 이러한 비교는 엄밀히 따져보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美國과 프랑스 및 英國의 시민혁명이 수 세기 동안의 준비 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그 비교 속에서는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의 밑바탕에는 혁명을 문화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金교수의 이론적 전제가 깔려 있다. 즉 「규범과 가치 그리고 사람들이 현실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문화적 현상을 혁명으로 이해하는 金교수는 이러한 문화적 현상이 英國과 美國 및 프랑스에서는 수 세기 동안에 걸쳐 전개되어 왔음에 비해, 해방 이후의 韩國에서는 결여되었다고 파악한 것이다.

金교수는 이어 反政府 봉기에 대한 시민의 지지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도시지역에서 成人市民層의 대다수가 李政權에 반대한 봉기를 지지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 점이 반란을 진정으로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가?”라고 그는 묻는다. 결론적으로 그는 자신의 연구가 밝히고 있는 바로는 “이 시민들이 민주주의적 가치들을 깊이 신봉하고, 평등과 자유의 이념에 따라 인간관계를 조직하며 존중하는 방식을 깊이 신

봉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韓國의 도시들이 민주주의의 이념을 위한 비옥한 온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 당시 대다수의 도시민들은 권력당국이 부당한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그 부당한 행동이 자신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권력당국에 맞선 항의운동을 지지한 것이지 민주주의 이념 그 자체를 옹호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은 아니라고 金교수는 주장한다. 바꿔 말해, 정치지도층이 자신들의 正義感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보다도 더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으로부터 金교수는 당시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지녔던 민주주의적 신념은 표피적이었으며 실용주의적인 것이었다는 또 하나의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이어 金교수는 4·19가 확고한 이데올로기적 이론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제도가 어떻게 재조직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사회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고 가족이 어떻게 재조직화되어야 하며 불평등의 형태가 어떻게 재정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이론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의 표현으로 4·19의 배후에는 “Marx 도 Rousseau 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 대신 많은 지식인들은 사회질서의 규칙들을 지배하는 부당한 절차들을 민주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교정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金교수는 4·19가 韩國史에서 한 정권의 붕괴를 유도한 최초의 「人民蜂起」였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그것은 학생시위가 권력구조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정치적 신화를 낳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정치적 억압에도 불구하고 韩國의 대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집단시위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V. 이 책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이 책의 문제점 또는 한계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우선 지적 할 수 있는 것은 이 책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金貞烈국방장관과 朴贊一비서관의 회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물론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일 것이다. 당시의 주요한 관련자들인 李承晚·李起鵬·崔仁圭·郭永周 등등의 인사가 아무런 증언(또는 반대증언)을 남김이 없이 죽었으며, McConaughy 대사는 金교수의 논평요청을 거부

했다. 당시 서울의 美大使館과 위성턴의 국무성 사이의 교신내용은 공개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金교수가 이만큼의 정보라도 밝혀 4·19의 상황을 실감있게 재구성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역시 한계가 극복되지 못했다는 점은 시인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점은 당시 韓國軍의 내부동향이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李政權의 봉파를 낳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韓國軍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韩國軍의 내부동향은 보다 더 상세하고 동태적으로 분석되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당시 계엄사령부에 대한 분석이 보다 더 자세히 제시되었어야 할 것이다. 李承晚에 대해 계속해서 충성을 다 해야 한다는 파벌 또는 지도자는 없었는가? 당시의 韩國 군사지도자들에 대해 美國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메시지에 대해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李承晚이 평소에 자신이 특별히 신임하던 군사지도자들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 또는 도박을 향해 끌어들이려고 시도한 흔적은 없었는가? 여당과 야당의 지도자들은, 이 책이 보여 주고 있는 것처럼, 그처럼 중대한 시기에 거의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있었던가? 그렇다면 왜? 어째서? 보다 좁혀 물건대,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민간정치인들은 왜 어째서 거의 아무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일련의 물음들에 대한 해답이 시도되었더라면 이 책의 가치는 훨씬 더 커졌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시도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며 몇 권의 책을 요구하는 작업이 되겠지만 말이다.

VI. 맷음 말

종합적으로 말하여, 이 책은 제 1공화정의 수립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南韓政治史를 밝히려는 일련의 정치학적 연구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을 메워 준 소중한 업적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4·19 또는 李政權의 봉파과정에 관해 보다 더 정확히 알게 되었으며, 그것이 南韓政治史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보다 던 정확히 알게 되었다. 이 점이 이 책의 공헌이다.

그러나 이 책은 자신의 설명을 통해 오히려 여전히 중요한 의문을 남겼

다. 이 책이 목시적으로 보여 준 것은, 앞에서 잠시 지적했듯이 당시의 韓國의 정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景務臺의 소수권력자와 그들의 신임을 받는 소수의 각료 및 소수의 여당 수뇌인사 그리고 군부 및 美國이라는 점이다. 위기의 정치과정에서는 역할수행자의 폭이 더욱 줄어들어 사실상 군부와 美國 및 景務臺의 삼자가 競技의 場에 남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꿔 말해, 위기의 정치과정에서 민간정치인들과 그리고 민간정치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로서의 의회와 정당이 사실상 무기력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비교정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아니 그것에 앞서서, 4·19 당시에 나타난 정치과정상의 그러한 유형은 그 뒤에는 중단되었는가 또는 반복되고 있는가? 만일 반복되고 있다면, 韩國의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과 가능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들을 이 책은 또한 제기시키고 있는 것이다.